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대법으로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 첫 사례
원고 5명 중 3명만 위자료 청구권 인정
향소심만 7년 2개월...17차례 변론진행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은 전남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

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한 후 폐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제조업체

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3명에게 위자료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관련법상 구 제급여조정금 일부를 받은 일부 원고에 대해선 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소를 제기한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정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 포함됐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했으나 이후 제품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 대상 소송은 이어졌다.

이후 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원고 중 일부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개별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등이 충분한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관련 물질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재량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2016년 12월 항소가 제기된 이후 17차례 변론을 거쳐 약 7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김희면기자



광주 남부소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잇따라... 화재예방 당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홍)는 부주의(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투기,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선옥기자



나주경찰, 범죄예방 위한 2024년 확대간부회의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20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및 계 팀장, 지구대 파출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치안 활성화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강진경찰, '여성일상지킴이' 위촉식-간담회 개최

강진경찰서(서장 박상년)는 지난 19일 주민참여-정성치안 일환으로 '여성일상지킴이'를 '슈룹:SSG-LOOK'으로 명칭하고 강진군 대표여성 11명과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곡성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군청 복지기동대 업무협약 추진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20일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와 곡성소방서 119 생활안전순찰대의 합동 곡성군 복지기동대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소집교육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16일, 20일 이틀에 걸쳐 담양일반산업단지(85개소) 및 피난약자시설(23개소)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 남화영 소방청장 '남다름' 직원 소통 간담회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욱)는 20일 남화영 소방청장이 소방서를 방문해 일선 소방공무원들과 소통하는 '남다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분신 택시기사' 25일 노동시민사회회장...사망 142일만

체불항의·완전월급제 주장 1인시위 중 분신
"동훈그룹 반성 의도 안 보여 장례 진행"
"택시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투쟁 계속"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택시 완전월급제 등을 주장하다 지난해 9월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의 장례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된다.

공공운수노조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을 엄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6일 고인이 숨진 지 142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장례는 '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백운 노동당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족은 딸 희원(32)씨다.

26일 오후 7시에는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안장돼 있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이다.

발인 뒤 오전 10시께부터 유족과 장례에 참여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시청으로 행진하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영결식을 연다. 노제는 오후 1시 방씨가 다녔던 해성운수 앞에서 진행된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훈그룹이 사과나 반성할 의도가 전혀 없기에 방영환 열사를 계속 방동고에 둘 수 없었다. (더 늦어지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돼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며 "장례를 치른다고 투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택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스스로 목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강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오유나기자



'도개결'을모

21일 대구 달서구가족센터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맞이 '2024 도개결'을모 행사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율을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손주는 50만원 줬는데" '용돈 투쟁' 할아버지에 고민

"비교당할까 봐 생신 참석하기 싫어"

다른 손주에 비해 용돈을 적게 줬다며 면박을 주는 할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연을 소개한 A씨는 "할아버지는 재산을 많이 불리신 데다 엄청 구두쇠여서 유독 '돈' 얘기를 많이 한다"며 딸문을 열었다.

A씨는 "저와 사촌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을 드리고 있다"며 "일반 직장인인 저는 항상 10~20만원 정도 드리는데, 사업을 하는 사촌은 30~50만원씩 드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할아버지께 봉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는데, 항상 뭐가 불평하다"고 덧붙였다.

명절이 지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A씨에게 "너희 사촌은 00만원 주던데"라고 말하며 A씨를 무안하게 만든다고 한다. A씨는 "다가오는 할아버지 생신 때 용돈을 비교당할까 봐 그 자리에 가기 싫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태어나서 돈을 아껴야 해서 10만원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또 비교될 것 같다"면서 "결혼 후에는 양가 부모님 챙기는 것도 바빠서 돈을 올리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할아버지가 비교하면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죠'라고 웃으면서 받아치라", "할아버지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고 '사촌 형제가 부자여서 참 부럽다'고 대답하면서 부러워하는 콘셉트로 쪽 밀고 나가라" 등의 조언을 했다.

오유나기자